

정보·사정기관 수장 영남 일색

'빅4' 중 감사원장만 호남 출신

국정원장·법무장관 부산, 검찰총장 경북 출신

“노대통령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 강화” 분석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정보·사정기관장 '빅4'의 출신 지역이 호남에서 영남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능력을 고려한 균형 인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 강화로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광양 출신인 김승규 국정원장 후임에 부산 출신의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내정했다. 지난 8월 신인 출신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성호 장관도 부산 출신이다. 사정·정보를 담당하는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자리를 모두 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출신이 맡게 된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도 지난해 10월 여수 출신의 김중빈 전 총장에서 경북 의성 출신의 정성명 총장으로 바뀌었다.

사정·정보기관 '빅4'의 출신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까지 모두 전남이었다. 그 가운데 4년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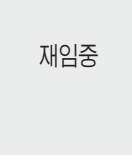
가 보장된 전운철 감사원장(목포)만 유일하게 남았다. 전 감사원장은 10·25 재·보선을 앞두고 출마설이 나왔지만 본인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히면서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 2명과 경북 1명 등 영남 출신 핵심 사정·정보 기관장들은 대과가 없을 경우 참여 정부 임기 말까지 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만복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의 경우 김승규 원장과 호남과 영남 출신 인사를 놓고 양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결국 이번 후임 원장 인선 과정에서 김승규 원장이 “김만복 불가론”을 주장할 정도로 폭발했던 점에서 향후 국정원의 후속 인사가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특정 지역 출신을 중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같은 고향 출신을 핵심 요직에 앉히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

■ 전·현직 정보·사정기관장 비교

전직	현직
 김승규 (광양) 2005.07~06.11 국정원장	 김만복 (부산) 06.11(내정)~ 국정원장
 천정배 (신안) 2005.06~06.07 법무장관	 김성호 (부산) 06.08~ 법무장관
 김중빈 (여수) 2005.04~05.10 검찰총장	 정성명 (경북 의성) 05.11~ 검찰총장
 전운철 (목포) 2003.11~ 감사원장	 재임중

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관련된 당의 지류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코드개각 아니냐”는 불만과 실망감이 뒤엉킨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국방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탁됨으로써 20명의 내각 가운데 광주 출신은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포함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전남 출신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함평), 이상수 노동부 장관(여수), 전북 출신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전주)과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장수) 등 각각 2명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 “총 연장 200km 호남운하 건설”

“내륙산업 수출 이끔 항만 호남에 1곳 세우”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일 호남을 방문, 내년 대선 후보 경선 공약으로 내세울 ‘호남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나주시청에서 열린 ‘영산강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호남운하 건설 구상의 윤곽을 공개하며 “21세기 해양시대를 여는 데 광주·전남이 선두에 서 있다”며 호남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의 구상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200km 구



모의 운하를 건설, 이를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연결함으로써 내륙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로 삼자는

것이다.

그는 또 내륙산업 발전을 이끌 수 출항구로서 내항과 외항을 결합할 수 있는 대규모 거점항만을 호남지역에 한 곳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이어 “영산강 유역을 개발해 운하가 뚫리고 뱃길이 열리면 곳곳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호남의 지역현안인 ‘영산강 뱃길 복원 작업’과 호남운하 건설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북핵 해결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與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 우습게 보는 것”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일 “북핵위기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초구 거주 오피스텔 리더들의 모임인 ‘서초포럼’이 팔레스타인에서 주최한 조찬특강에 참석, “지금 북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2002년 방북 당시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의 결과물을 이끌어낸 점을 거론하며 “당시 저는 제대로만 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으며

그 당시의 생각과 자세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강 후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자신들의 질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대북 특사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나라가 위기상황인데) 여권의 최대 화두는 우습게도 정계개편이다. 오직 정권연장만 생각하는 걸 볼 때 어찌 국민을 이리 우습게 보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DJ 설계 평화 구도 바뀌선 안된다”

“개성·금강산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당의장은 2일 북핵해법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계한 평화 구도의 골조를 바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 옹보포럼의 초청으로 실시한 특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설계자’라고 규정할 뒤 “이에 대한 인테리에는 손질할 수 있어도 골조 설계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에서 있는 현재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안전, 비핵화의 복원, 외교적 해결 등 세 가지”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신뢰관계의 복원과 남북관계의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덧

붙였다.

정 전 의장은 포용정책의 폐기 주장에 대해 “국지전을 감소하더라도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거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협상과 대화는 북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 등 최근 정계개편 논란과 관련, 그는 “한국 정치는 진화와 개량과 과정에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고 말해 직답을 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뉴라이트 ‘개혁적 보수주의’ 결의

광주·전남연합 공식 출범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이 2일 오후 광주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공동대표,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상임대표 박년화씨 등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 개혁적 보수주의의 운운을 결의했다.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은 이날 창립 선언문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우리 민족끼리’와 ‘포용정책’을 앞세워 반미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선진복지국가의 꿈을 실현시키자”고 다짐했다.

창립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진홍

의장은 현 정권을 좌파세력으로 규정할 뒤 “한 번 더 이런 세력이 정권을 이르면 우리나라는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며 “오는 2007년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 2중대”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조직은 시민운동 조직일 뿐, 한나라당 조직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재 한나라당으로는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어렵고 나라의 미래를 열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상임고문 방철호(주월교회 담임목사) ▲고문 정환갑(전 전남대 법과대학장) ▲고문 박중순(크린환경산업(주) 대표) ▲고문 김성수(전 ROTC 전남·광주회장) ▲고문 조병현(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고문 송득영(전 전남도청 국장) ▲고문 임희봉(삼호교회 장로) ▲상임대표 박년화(선미 대표) ▲공동대표 김용민(금봉건설 부회장) ▲공동대표 김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은 2일 오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자(숙명여대 광주동창회장) ▲공동대표 주재원(코리아노무법인 대표) ▲공동대표 겸 대변인 현중순(호남대 초빙교수) ▲공동대표 겸 정책자문위원 홍금우(조선대 경제학 교수) ▲기획위원장 김옥남(대한기업건설 대표) ▲조직위원장 심안섭(한광회 대표) ▲청년위원장 김은석(선우푸드시스템 대표) ▲편집위원장 최현미(제일화재) ▲사무처장 배성국(선미 이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OLZEN OUTLET

Discount 50% ~ 40% 가격/할인

첨단 폭스존 패션 아울렛 1층 올젠매장 T. 062-611-8109

OLZEN INVISIBLE PRESTIGE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풀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2개월 졸업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정독서실, 도서관 활용 혜택 • 시험합 무료사용 가능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매월 실전문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 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전통과 합의를 실행하는 강사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번, 학사, 사대면접 약대, 한의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11월1일 ☎ 227-8088